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홍콩 우산혁명 '10년'

5~8일 광주독립영화관서 열려

'촛불, 마스크, 다시 광주' 주제 34편 선보여
광주 영화감독 신작·영화제 호평 작품 상영

광주 지역 영화 감독들의 신작을 비롯해 각종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8회 광주독립영화제가 5일~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촛불, 마스크, 다시 광주'라는 주제로 열리는 영화제에서는 장·단편영화 34편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홍콩 영화 '10년'이다. 영화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의 젊은이들이 홍콩 중심부를 점거하고 79일간 시위를 벌인 우산혁명을 배경으로 한다. 우산혁명 이후 홍콩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 두려움과 암울함, 연대와 희망을 2025년 홍콩이라는 시공간 속에 담았다.

'홍콩시위, 그리고 홍콩의 미래'를 주제로 '10년'의 연작 중 한 편을 연출한 구문걸 감독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6일 오후 2시30분)을 갖으며 독립영화배우인 이태경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광주지역 감독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단편영화 신작전'에서는 이경호 감독의 '해미를 찾아서', 유명상 감독의 '당신은 안드로이드입니까?'를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신작전'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광주 여성영화제의 발자취를 담은 이순학, 정나라 감독의 '어쩌다 10년'과 영화인 조대영의 일상을 담고 있는 최성욱



제8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촛불, 마스크, 다시 광주'라는 주제로 5일~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올해 독립영화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10년' 중 한 장면.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감독의 '호모 시네마쿠스'도 소개된다.

'마을영화 신작전'에서는 운수안 감독이 북구 중흥동 주민들과 협심해서 만들어낸 '기억저편'이 상영된다. '단편영화 초청'에 소개되는 16편의 단편영화는 올해 각종 영화제에서 화제에 오른 작품들이다.

'장편영화 초청'에서는 영화 '작은 빛',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등 3편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임용철 감독의 '나고야의 바보들'이 선정됐다. 작품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저지른 범죄에 눈감지 않는 일본 지식인들의 모임인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투쟁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 작품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2013년 서울 삼청동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서울관)은 미술계의 '20년 숙원'이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큰 맘 먹지 않으면 선뜻 나서기가 꺼려질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 탓이다.

그렇다고 서울관이 '꽃길'만 걸은 건 아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등록문화재이다 보니 각종 규제들로 건립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미술관 부지로 낙점된 옛 기무사 터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이 곳에는 지상 3층의 본관 이외에 강당, 연병장 등 건물 10여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미술계가 총 2만7402㎡에 달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미디어 월(옛 전남도청, 현 민주평화교류원)에 내걸린 5·18 항쟁 무명열사 50명의 영정사진 위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미디어 아티스트 정지영씨의 퍼포먼스 'Licht-빛'이다. 이날 팔손의 김길자씨는 80년 '그날' 세상을 떠난 1 아들 문제학군을 떠올리며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관람객들의 가슴에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정작가는 "5·18의 마지막 항쟁자인 옛 전남도청과 미디어 월은 '동전의 앞 뒤'처럼 한몸인 만큼 5월 정신이 미디어 아트 영혼한 빛처럼 오래 기억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시아문화전당의

'기억의 힘'을 믿는다면

하는 이 일대를 '한국의 빌바오'로 조성하자며 철거를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윤인 측근, 원형보존을 통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건물들을 존치하면 미술계의 '청사진'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술인들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시민단체들이 '서울관 프로젝트'의 큰 틀을 깨지 않기 위해 근대화 문화 재인 분량만 원형을 살리는 통근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 나머지 부속건물을 없애는 대신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장소가 지닌 역사성을 '기억'하는 차선책을 택했다. 예술의 힘으로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설계를 맡은 민현준 건축가는 여러 개의 섬이 떠 있는 듯한 군도(群島)형 미술관으로 풀내 미술관의 문턱을 낮췄다. 덕분에 시민들의 미술관 방문을 연례행사가 아닌 일상의 마실로 여기게 됐다.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해온 미디어 월이 철거될 운명을 맞게 됐다. 최근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6억 원을 들여 건립된 미디어 월은 도청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복원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사라지게 된다. 이를 두고 문화계에선 옛 전남도청과 문화전당을 '이어주는' 미디어 월의 의미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디어 월이 지닌 예술적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가로 75m, 세로 16m 규모의 미디어 월은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때로 기억은 눈에 '보이는 것' 보다 강렬하다. 예술이 전하는 기억의 힘은 유적 못지 않다. 미디어 월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황지우 "시는 이런 거다" 라고 말하기 참 힘듭니다

5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서 비타포엠 북 콘서트

제49회 비타포엠 북 콘서트(북 콘서트)가 5일 오후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비타포엠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후원하는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황지우 시인의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백애송 시인이 진행하는 이번 북 콘서트는 김경윤, 선안영 시인이 시 낭송으로 문을 열며 테너 장재연과 김진우의 '첫사랑' 등이 펼쳐진다. 시와 산문 낭송시간에는 김정원 '시골학교', 오미옥 '북두칠성 어머니', 김령 '여기', 임성규 '스티로폼 눈사람'이 진행된다.

황지우 시인은 '시와 순간-영화 '일 포스티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황 시인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는 걸 느낀 적이 많습니다. 시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나 믿음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약속 아래서 시 쓰기를 해야 할 텐데 딱히 '시는 이런 거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 출신인 황 시인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연혁(沿革)'이 입선돼 창작



황지우 시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등과 희곡집 '오월의 신부'를 발간했다.

한편 비타포엠(회장 이지담)은 새 달에 한번 셋째 주 목요일 작품집을 낸 화원을 우선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문학에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기광서·이희은 교수 외 저서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기광서 교수의 '북한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과 이희은 교수 외 10여 명의 저자가 펴낸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 (이화여대출판부)이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먼저 '북한국가의 형성과 소련'은 러시아 유학 1세대인 기 교수가 해방이후 북한 정권 수립의 과정과 구소련의 역할을 분석한 책이다. 마·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과 북한정치체제의 형성 및 발전과 정치세력 등의

동향 등을 조망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서 등에 소장된 수만 매에 이르는 한반도-북한 관련 기밀해제 문서들이 기본자료로 활용됐다.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은 미디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 오늘날 여성의 삶과 페미니즘의 전개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수행하는 여러가지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동시에 그 핵심 기저에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고찰한다.



하기 위해 매년 10개 분야에서 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스24, 5일까지 '올해의 책·올해의 커버' 투표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제17회 올해의 책·올해의 커버' 투표를 5일까지 진행한다.

소설, 시·에세이, 인문·교양, 경제경영, 자기계발, 유아·동·청소년, 가정·취미·실용, 만화·예술 등 8개 분야 총 232권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24권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다. 함께 진행되는 '올해의 커버' 투표를

통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책 표지도 선정한다. 출판사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및 예스24 MD의 추천을 받은 64권의 책 표지 중 독자들이 2종부터 최대 5종까지 선택하면 득표 순으로 올해의 커버 10권이 선정된다.

투표 결과는 6일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사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국수전문점
☎061)332-9992, 010-7103-255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집)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 (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이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철충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병,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동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